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해상보안청의 1차 자료 분석-

박 병 섭**

〈목 차〉

1. 머리말
2. 독도 침탈의 개시
3. 최초의 영토표주
4. 순시선에 대한 총격사건
5. “제5-9차 다케시마 순시”
6. “제10-16차 다케시마 순시”
7. 맺음말

〈국문초록〉

광복 후 일본인의 독도 도항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53년 독도가 미군 폭격연습장에서 해제되자 일본행정선의 독도 침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월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일본 영토권에 대한 침해 및 일본 영토로의 밀항, 밀어로 간주하고 외무성이 주도해 ‘다케시마 단속’을 결정했다.

독도에서 ‘다케시마 단속’을 실행한 기관은 ‘제8관구해상보안본부’의 순시선이다. 순시선은 6월 27일 침입해 무장한 임검반(臨檢班) 및 시마네현 직원들이 동도에 상륙했다. 그들은 일본의 영토표주 및 ‘무단어로’ 금지의 팻말을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해 독도로부터 퇴거를 명했다. 이 심문에서 해상보안청 관원들이 집요하게 물은 것은 한국 행정선이나 관헌의 동향이었다. 이 심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이 가능하다고

* 일본 독도=竹島연구넷

내다보았던 것 같다.

외무부는 이 사건을 「제4차 침범」으로 기록했는데 이런 침탈행위는 한국 관민을 분노시켰다. 한국정부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경찰서 순라반을 독도로 파견했으나, 이를 알게 된 일본정부는 순시선을 파견했다. 외무부가 이르는 「제5차 침범」이다. 7월 12일 순라반은 독도에 침입한 순시선을 발견해 이를 임검했다. 순라반은 임검 후에 순시선을 울릉도로 연행하려고 했으나, 순시선이 달아났기 때문에 순시선을 서도에서 총격했다.

이런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후도 일본정부는 독도의 침탈을 계속해, 1953년에는 순시선이 독도에 17번이나 침입하고 일본의 영토 표주를 4번이나 세웠다. 결국 일본의 소유원망을 표시하는 영토표주는 1953년 하반기 184일 간에 실로 69% 기간동안 세워져 있었다. 즉 일본의 독도 침탈을 69% 허용한 셈이 된다. 그 사이에 한국의 영토표주는 전혀 없었다. 일본이 독도 탈환을 개시한 1953년 하반기는 한국전쟁 탓으로 한국은 독도를 완전히 수호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

주제어: 해상보안청, 제8관구해상보안본부, 순시선 해쿠라, 순시선 나가라,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 다케시마 임검반, 독도 순라반, 울릉경찰서, 영토 표주, 총격사건

1. 머리말

일본인의 독도침입은 1941년을 마지막으로 두절됐는데, 광복 후에도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연합군지령 SCPIN 677 및 1033 소위 맥아더라인에 의해 금지됐으므로 합법적인 일본인의 독도 침입은 없었다. 이윽고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1952년 4월 독립했으나, 이 직후에 일본에서 독도가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역시 일본인의 독도로의 도향은 불가했다. 그러나 제2차 독도폭격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미·일 협의에서 독도의 폭격연습지 지정을 해제하고, 일본외무성이 이를 1953년 5월 관보에 공고하자 일본 선박들이 독도 침입을 시작했다. 공고로 부터 2주일 후인 5월 28일에는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가 독도에 침입했다. 외무부가 “제1차 침범”으로 이르는 사건이다.¹⁾

‘시마네마루’ 조사에 의해 한국 어민 약 30명의 독도 어업이 확인되자 해상보안청은 이를 막으려고 순시선을 독도에 파견했다. 6월 27일 해상보안청 관원들은 독도에 상륙해 일본의 영토표주를 세우고 어민들에게 퇴거를 언도했다. 외무부가 “제4차 침범”으로 이르는 사건이다. 이런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한편으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울릉경찰서 순라반을 파견했다. 순라반은 일본의 영토표주를 철거하거나, 7월 12일에는 침입한 순시선을 총격, 격퇴해 독도를 지켰다. 외무부가 “제5차 침범”으로 이르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정부는 독도 침탈을 도모해 순시선을 빈번히 독도로 파견해 철거된 일본의 영토표주를 재건하는 등 침탈행위를 되풀이했다.

이런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에 관한 선행연구는 정병준,²⁾ 박병섭³⁾ 등의 저서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신문 보도의 분석 등이 중심이며 침입한 당사자인 해상보안청 자료는 인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의 분석은 한정적이며 침입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해상보안청에서 직접 입수한 독도 침입사건에 관한 자료나 일본외무성 혹은 시마네현이 공개한 자료 등을 한국 자료와 대조해 일본 순시선의 빈번한 침입을 분석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의 전체상을 밝힌다. 본고에서는 우선 1953년의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밝힌다. 1954년의 침탈행위는 다음 기회로 넘긴다.

2. 독도 침탈의 시작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하는 3일 전인 1952년 4월 25일 SCAPIN

1) 외무부, 『독도문제개론』, 1955, 52~53쪽.

2) 정병준, 『독도1947』, 돌베개, 2010, 899~915쪽.

3) 박병섭, 『독도어업의 역사와 영유권 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90~105쪽.

1033 즉 맥아더라인은 새 SCAPIN에 의해 철폐됐다.⁴⁾ 이를 미리 예상한 한국정부는 3개월 전에 맥아더라인을 대신할 규제로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평화선 안에 넣었다. 일본은 이 조치에 대항해 미군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는 공작을 벌였다. 7월 26일 미·일 행정협정 2조에 규정된 미·일 합동위원회는 일본이 주일미군에 제공할 시설로 다케시마(竹島) 즉 독도를 지정했으며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로 인해 일본 선박이 독도로 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 지정은 한국을 무시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독도로 출어한 어민 및 한국산악회 학술조사단이 미군기의 폭격을 당한 제2차 독도폭격사건이 발생했다. 다행이도 인적 피해는 없었다. 한국정부가 이를 미국에 항의하자 다음 해 1월 20일에 미군은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⁵⁾ 일본에서는 늦게 3월 19일에 이르러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독도의 연습장 지정이 취소됐다. 이를 외무성은 5월 14일에 관보에 공고했으며, 이때부터 일본 선박의 독도 침입이 시작됐다.

5월 28일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63톤)가 독도로 침입해, 일찍이 소문이 되었던⁶⁾ 한국인의 독도 어업을 확인했다. ‘시마네마루’ 조사에 의하면 이 어민들 약 30명은 3년 전부터 4월에 되면 독도로 출어하고 본격적인 잠수기를 사용해 미역이나 전복을 채취하고 있었다.⁷⁾ 어선은 약 5톤짜리 발동기선 5척과 전마선 5척이며, 밤에는 동굴에서 산다고 하였다. 시마네마루의 독도 침입은 ‘쓰시마난류조사’의 일환으로 어장 개발

4) SCAPIN 번호는 없으며, AG(Adjutant General's Section, 고급부관부)번호는 800.217.

5) 외무부, 전게서, 47쪽.

6) 《島根新聞》 1951.9.5, 「竹島に韓国人?」; 《島根新聞》 1951.9.8, 「確かにいた韓国人」.

7) 《朝日新聞》 1953.6.1, 「竹島に韓国人」; 《山陰新報》 1953.5.30, 「戦後初めて「竹島」を訪れる」.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마네마루는 6월 15일에도 독도해역에 침입해 독도 동쪽에 신도퇴(神藤堆, 심홍택해산)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들 조사에 관한 자료 공개를 시마네현에 요청했으나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였다.

한국인의 활발한 독도 어업은 시마네현 및 일본정부에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 시마네 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에 즈음해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확인을 원한다. 이 선결문제가 해결되면 출입국 관리의 명분으로 단호히 단속할 것이며 지금은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경(國警)시마네본부대장은 “오히려 어업권 침범문제로 다루어야 할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케시마의 귀속에 관해서는 아직 국제문제로서 많은 것을 남기고 있으며, 밀입국으로 단속할지의 여부는 정부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일본정부의 대응 방침을 기다리기로 했다.⁸⁾ 지방 현장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응방침도 정할 수 없었으며 일본정부의 대응 방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인의 다케시마 상륙은 법적으로는 일본 영토권의 침해임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령 및 어업 관계 법령 위반 행위이므로 외무성 주최로 53년 6월(2일, 5일, 9일)에 관계 관아가 이 대책을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케시마문제 대책 요강」을 결정했다.⁹⁾

이 글은 일본외무성 『일·한관계문서』 제6회 공개 중 「문서번호 910

8) 《山陰新報》 1953.6.3, 「注目される竹島の韓国人」.

9) 外務省, 「日韓關係文書」公開(2008.11.16), 文書番号910:「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その1、XV.竹島問題(「竹島問題」로 약칭), 날짜 없음, 15-7~15-8쪽. 이 원문을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8.wx301.smilestart.ne.jp/gji-all/6ji/01159/2006-00588-0910-01-03-IMG.xdw>

「일·한 국교 정상화의 기록」1, XV.다케시마문제」로부터의 인용이다. 그런데 글 중의 「다케시마문제 대책 요강」은 외교상의 배려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다케시마문제 대책 요강」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6월 17일에 “다케시마 주변 해역의 밀항·밀어 단속의 강화”를 결정하고,¹⁰⁾ 산인(山陰)해역을 관할하는 ‘제8관구(管區)해상보안본부’(8관본부)로 약칭)에 “다케시마 주변의 밀항·밀어 단속 특명”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순시선의 독도 침입이 시작됐다. 침입의 상황은 해상보안청이 1965년 10월에 작성한 자료 「제50회 임시국회 예상 질의응답 자료 2(다케시마 관계)」 중에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다케시마 순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연 51번의 “다케시마 순시”에 관해 차례, 연월일, 사용한 선박, 거리, 사진, 일본 측 실시 사항, 한국 측 시설 등의 상황·동향, 외교 조치 등을 기록했다고 한다.¹¹⁾ 이 자료의 공개를 해상보안청에 신청했으나 이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회답이 있었다.

일본외무성은 이 자료를 요약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다케시마 순시」 일람표를 작성했다. 이 중에서 1953년분은 <표 1>과 같다.¹²⁾ 단 <표 1>에는 6월 23일분을 추가했다. 또한 ‘자료란의 ‘○’은 ‘8관본부’가 자료를 공개한 것을 표시한다. 이 중에서 제10차 및 12차에 관해서는 사진 만을 제시했지만, 중요한 제1차, 4차, 5차에 관해서는 자세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는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0) 海上保安庁, 『海上保安庁30年史』, 海上保安協會, 1979, 28~29쪽.

11) 外務省, 前掲 「竹島問題」, 15-7~15-8.

12) 상동.

〈표 1〉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다케시마 순시」 1953년분

자료	차	월일	사용선	거리	사 진	특기사항	항의 월일
○	1	6/23	구즈류 노시로	500m		악천후로 상륙 실패.	
		6/27	오키 구즈류	상륙		설표(設標), 섬에 온 한국인 6명에 퇴거를 권고.	
	2	7/2	나가라	상륙		청수의 용출 터를 발견.	
	3	7/9	오키	100m	○		
○	4	7/12	헤쿠라	700m		일본 측 표주는 철거당함. 한국어선 3척, 한국인 약 40명(경관 7명)이 있으며, 한국 경관이 '헤쿠라'에 와서 퇴거를 요청, '헤쿠라' 이륙시에 수십발의 총격을 받음.	7/13 8/8 8/31
○	5	8/3	헤쿠라	상륙			
	6	8/7	헤쿠라	상륙	○	설표.	
	7	8/21	나가라	상륙			
	8	8/31	헤쿠라	3해리			
	9	9/3	오키	1해리			
○	10	10/6	헤쿠라 나가라	상륙		일본 측 표주는 철거당함. 설표.	
	11	10/13	헤쿠라	3해리			
○	12	10/17	나가라	300m	○	일본 측 표주는 철거당함. 동도에 깃대 2, 서도 부근의 소도에 측량 폴? 1개 있다.	
	13	10/23	나가라 노시로	상륙	○	설표. 한국 측 표석, 깃대를 철거.	
	14	11/15	나가라	200m			
	15	12/6	헤쿠라	5해리			
	16	12/19	헤쿠라	3해리	○		

독도에 침입한 순시선의 일람표는 〈표 2〉와 같으며,¹³⁾ 이 중에서 독도에 자주 침입한 순시선은 중형(450톤급) 강철선 '헤쿠라' 및 소형(270톤급)

13) 海上保安庁, 『十年史』, 平和の海協會, 1961, 82~87쪽을 바탕으로 작성함.

강철선 ‘나가라’다.

〈표 2〉 독도에 침입한 순시선 일람표

기호	순시선	크기	총 톤수 (ton)	최고속도 (노트)	마력 (hp)
PL 105	쓰가루	대형	811	15.9	4,600
PM 06	오키	중형	389	14.3	1,300
PM 14	헤쿠라	중형	386	14.6	1,300
PS 09	구즈류	소형	232	13.6	800
PS 13	노시로	소형	243	13.6	800
PS 18	나가라	소형	241	13.6	800

* 1노트 = 1.85 km/hr

3. 최초의 영토 표주

1) 6월 23일의 독도 침입

해상보안청으로부터 “다케시마 주변의 밀항·밀어 단속 특명”을 받은 ‘8관본부’는 곧 이를 실행했다. 이 ‘단속’이 〈표 1〉의 “제1차 다케시마 순시”이다. ‘8관본부’는 이에 관한 보고서 「다케시마 주변의 밀항·밀어 단속 실시 경과보고」(「1차 경과보고」로 약칭)를 해상보안청에 7월 1일 제출했다.¹⁴⁾ 이 내용은 송장, 「다케시마 주변의 밀항·밀어 단속 실시 경과」, 「제1차 다케시마 주변 특별초계 관련 전보철(電報綴)」, 「특별초계 항적도」, 「다케시마 조사 보고서(3)」로 구성된다. 이것을 종합하면 순시선의 독도 침입 경위는 다음과 같다.

14) 第八管区海上保安本部長発 海上保安庁警備救難課長宛, 「竹島周辺密航密漁取締実施經過報告について」, 195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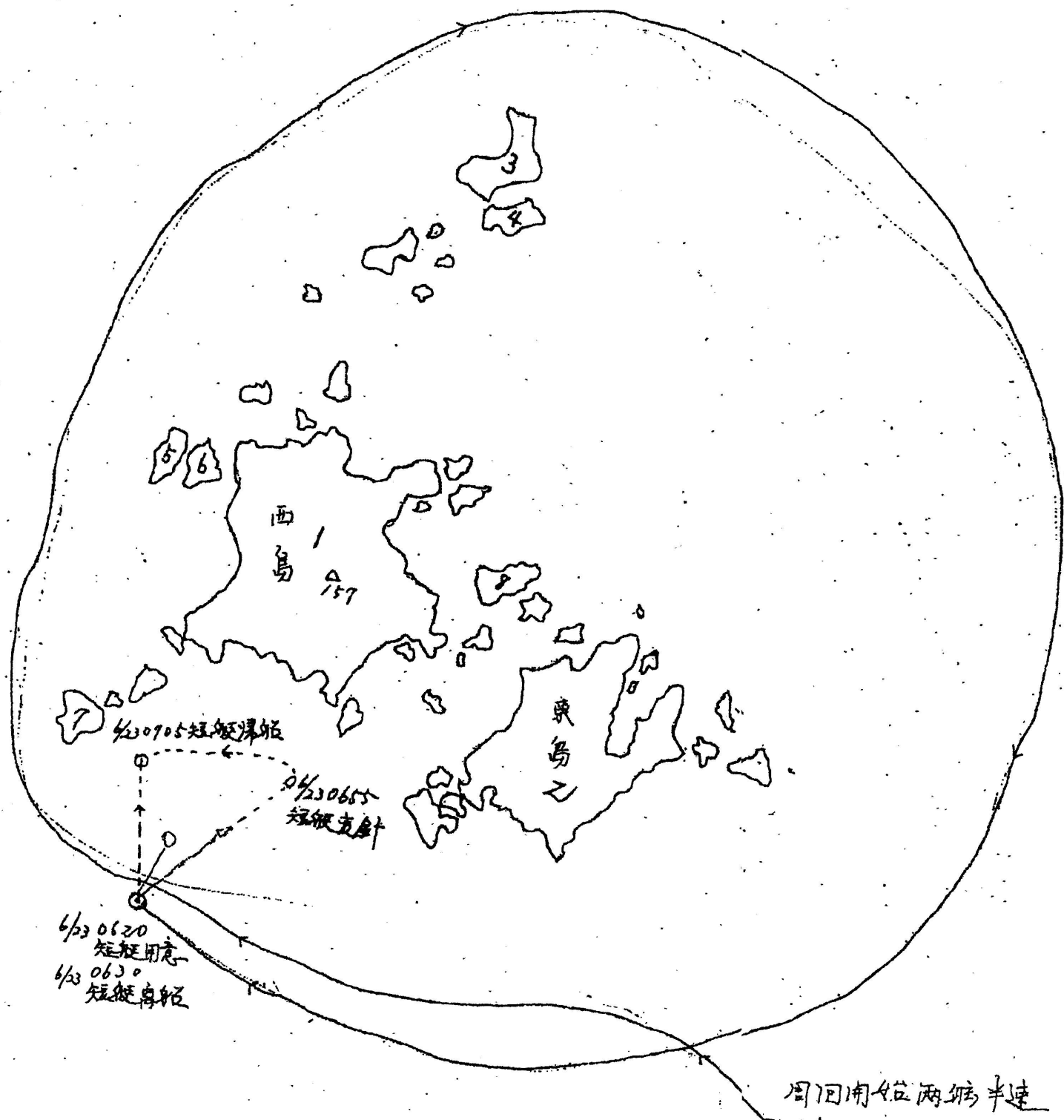
‘8관본부’는 독도에 침입하기 전에 면밀한 준비를 했다. 6월 20일 현지의 관련 행정부서(시마네현 국경(國警)본부, 마쓰에(松江)입국관리사무소, 시마네현청, 마쓰에 지방검찰청, 미군 사카이항공대)와 신중히 개별적으로 협의 혹은 연락했다. 국경본부에서는 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경승자(警乘者) 파견, 시마네현청에는 표주 및 팻말 제작 등의 협력을 얻었다. 선대의 행동은 ‘8관본부’부장이 직접 지휘하고 선대의 지휘는 경비구난부장이 맡기로 했다.

당초 ‘8관본부’는 독도로 중형 순시선 ‘오키’ 및 ‘미우라’를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두 순시선의 고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소형 순시선 ‘구즈류’ 및 ‘노시로’를 파견하기로 했다. 순시선에는 시마네현 어정과(漁政課) 직원 2명, 경찰관 3명, 입국관리사무소 관리 2명이 동승했다. 두 순시선은 6월 22일 16시 30분에 돗토리현 사카이(鳥取県境)를 출발하고, 다음날 05시 15분에 독도로 도착해 속도를 반으로 줄이고 <그림 1>과 같이 섬을 일주했다. 순시선은 06시 20분에 보트를 내리고 임검반이 독도 상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강한 동풍(13-15m) 탓으로 섬에 도달하지 못해 상륙을 포기했다. 임검반이 순시선에 돌아올 때 2명이 바다에 떨어져 1명이 부상했다.¹⁵⁾ 이 때문에 ‘노시로’는 부상자를 태우고 사카이로 회항했다. ‘구즈류’는 재차의 독도 침입에 대비해 오키(隱岐)로 가서 대기하고, 응급수리를 마치고 온 순시선 ‘오키’와 합류했다.

다음 날에 ‘오키’와 ‘구즈류’는 독도로 침입할 예정이었으나, 국경본부로부터 마이니치신문사(毎日新聞社) 등이 독도를 탐방한다는 소식을 들어 기밀 유지를 위해 출항을 연기했다. 마이니치신문사 기자는 오키고등학교 연습선 ‘오토리마루(鵬丸)’를 타고 25일 07시 30분에 오키를 출발해 오후에 독도에 상륙하고,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날 13시경에 오키로 돌아갔다. 이

15) 兵庫仁志·小川健治, 「竹島周辺特別取締りおよび調査実施」, 『海上保安庁の思い出』, 海上保安協会, 1979, 174~178쪽; 広瀬肇, 「竹島調査と李承晩ライン(後編)」, 『捜査研究』 745号, 2013, 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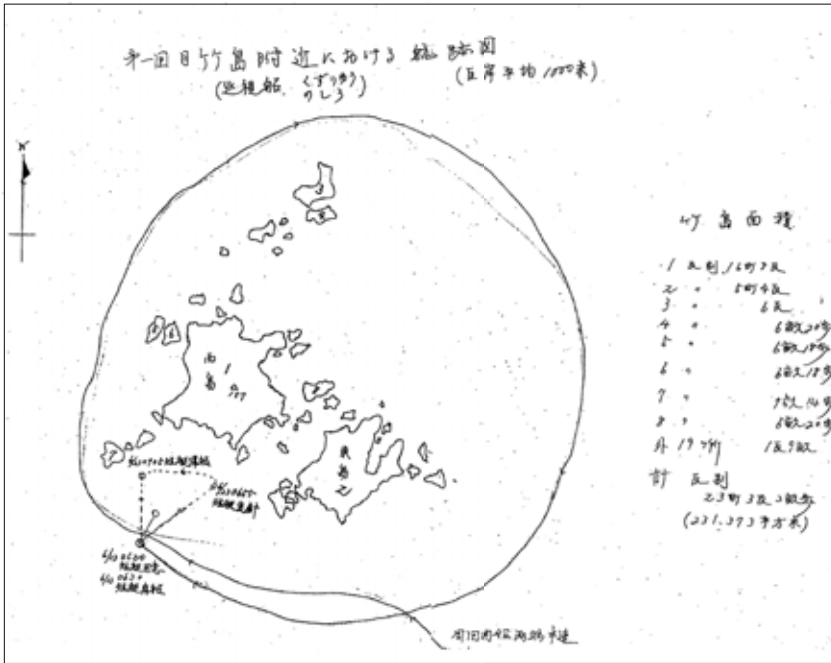
第一回目竹島附近における航跡図
 (監視船 くずりかき) (巨岸平均1000米)



竹島面積

1	反別	16町2反
2	"	5町4反
3	"	6反
4	"	6畝20歩
5	"	6畝18歩
6	"	6畝18歩
7	"	1畝14歩
8	"	6畝20歩
外	19ヶ所	1反9畝
計	反別	23町3反3畝歩
		(231.373平方米)

同日南位両端半連



〈그림 1〉 6월 23일 순시선의 항적

는 외무부가 ‘제2차 침범’으로 부르는 사건이다.¹⁶⁾

2) 6월 27일의 독도 침입

6월 25일 19시 30분 순시선 ‘오키’와 ‘구즈류’는 독도를 향해 출항했다. 그러나 기상이 악화된다는 기상 특보를 수신해 21시 30분에 회항해, 26일 03시 30분에 오키 우라고(浦郷)에 돌아왔다.¹⁷⁾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

16) 외무부는 『독도문제개론』에서 25일에 일본의 ‘제2차 침범’, 27일에 ‘제3차 침범’이 있었다고 기록했으나, 이들은 25일의 같은 ‘오토리마루’사건을 말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박병섭, 전거서, 89~90쪽.

17) 澤富造·井川信夫, 「復命書」(1953.6.28). 이는 島根県立図書館所蔵, 『竹島漁場調査報告』에 수록됨.

고 두 순시선은 18시에 오키를 출항해, 다음 날 03시 30분에 독도에 도착했다. 이들은 새벽을 기다리고 <그림 2>와 같이 독도를 일주한 후에 보안관 25명, 경찰관 3명, 시마네현 직원 2명, 모두 30명으로 되는 임검반이 보트를 타고 05시 55분에 독도에 상륙했다. 이들은 예정대로 임무를 약 2시간으로 마치고 07시 40분에 순시선으로 돌아갔다. 외무부는 이 사건을 『독도문제개론』에 “제4차 침범”으로 다루고 사건의 날을 28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27일이 옳을 것이다. 이 침입사건에서 임검반이 독도에서 실시한 작업은 「1차 경과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어민의 심문과 퇴거 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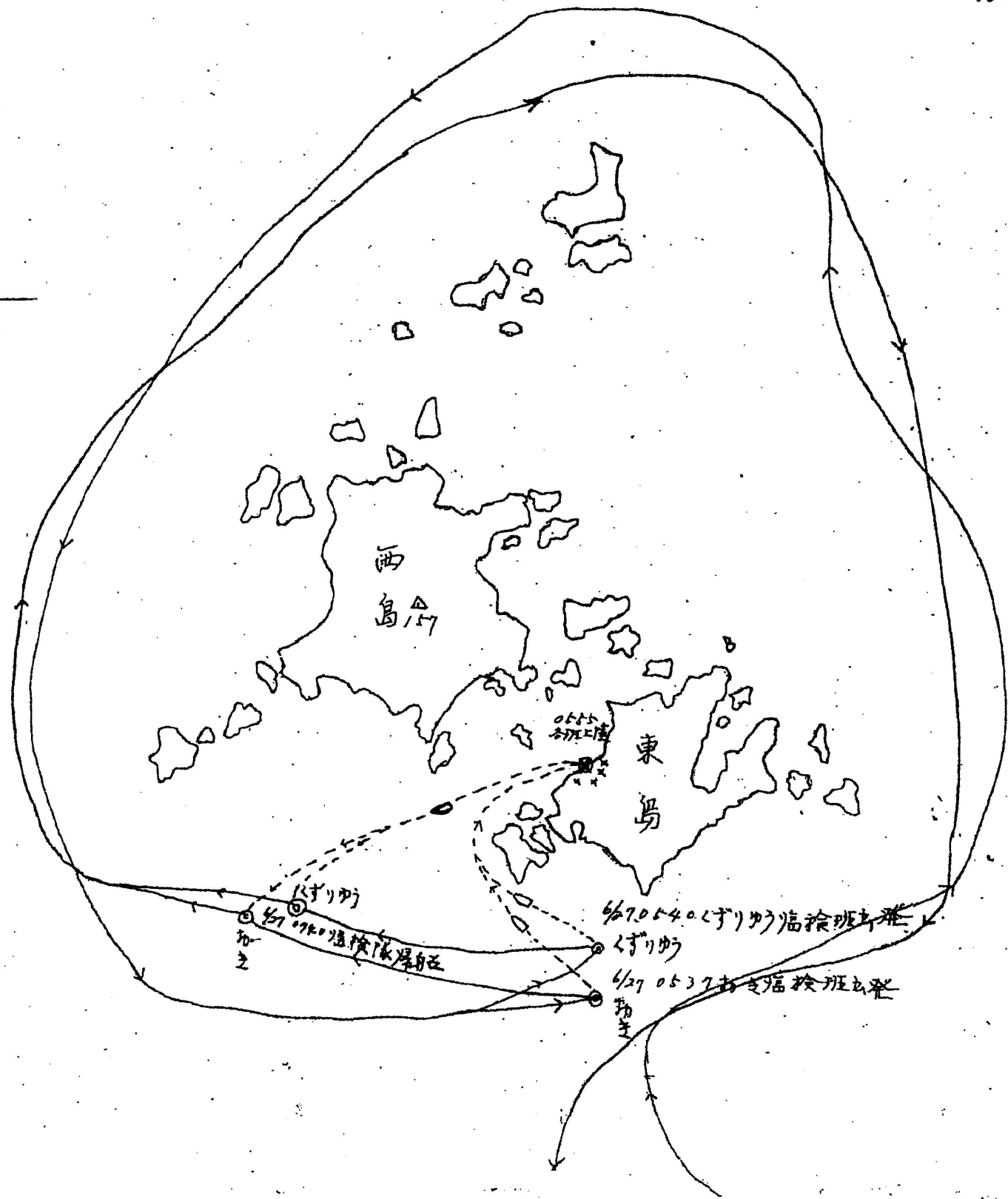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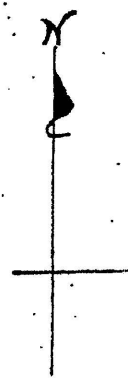
임검반은 독도에서 어로 중인 한국인 6명을 심문했다. 미리 예정한 개별 심문의 내용은 (a)주소·이름·연령·경력, (b)한국인이 섬에 온 경위, (c)어업의 종류, 어획물의 종류 및 수량, (d)조업의 상황, (e)선박의 상세, (f)어부들의 지식 정도나 특징, (g)어업허가증이나 도민증의 유무, (h)어민의 영토의식과 섬에 온 동기, (i)생활 상황과 소지품, (j)신문·잡지의 유무 등이었다.

앞의 「1차 경과보고」에 따르면 주소는 모두가 울릉도 남면 도동이다. 어민들의 이름과 나이에 관해서는 ‘8관본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시마네현은 이름 등도 출장자의 「복명서」¹⁸⁾에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름과 나이는 정원준(34), 정복룡(35), 정석구(26), 이만룡(31), 정무출(30), 변학봉(39)이며, 모두 어업회의 조합원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변학봉의 이름은 2일 전에 취재한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도 등장한다.¹⁹⁾ 연장자인 변학봉은 10년 전부터 매년 4월에서 10월에 독도로 출어하고 있었다. 일행 중 1명은 3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 4명은 올해 처음으로 출어했다. 어민들은 주로 미역을 따고, 이 외는

18) 澤富造·井川信夫, 전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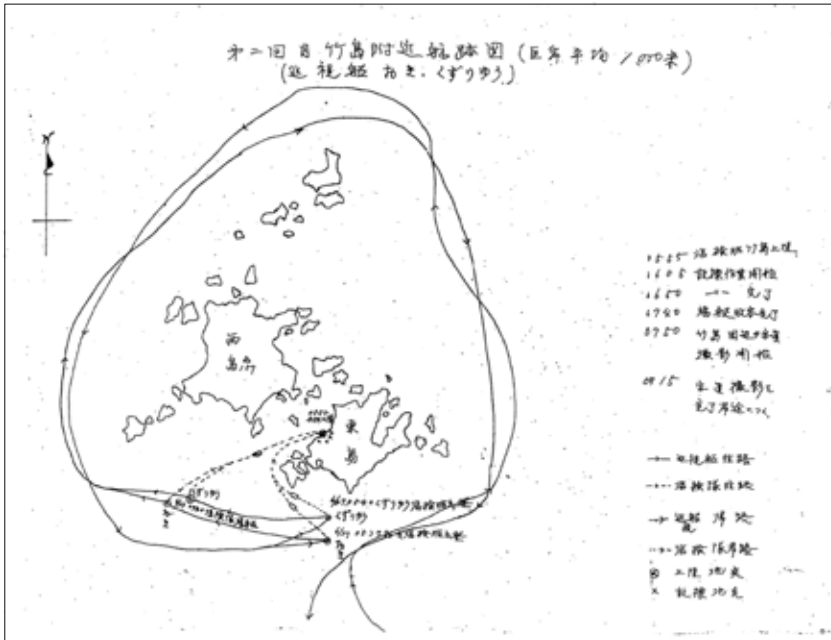
19) 『毎日新聞』 1953.6.27-28, 「問題の『竹島』現地レポート」 1, 2.

第二回 竹島附近航跡図 (巨岸平均ノ100米)
 (逃視艇おき. くざりゆう.)



- 0555 臨検班竹島上陸
- 0605 設標作業開始
- 0650 〃〃 完了
- 0740 端艇收容完了
- 0750 竹島周辺の写真撮影開始
- 0815 写真撮影完了岸途へ

- 逃視艇往路
- - - 臨検隊往路
- 逃艇帰路
- - - 臨検隊帰路
- ⊗ 上陸地点
- × 設標地点



〈그림 2〉 6월 27일 순시선 '오키', '구즈류'의 항적

전복과 우뚝가사리 등도 채취했다. 이런 어획물은 앞의 「복명서」에 자세히 기록됐다.²⁰⁾

이 심문에 앞서 '8관본부'는 미리 〈그림 3〉과 같은 조사용지 「다케시마 조사보고서 3」을 준비해 어민의 회답을 개별로 기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민들에게 이것에 서명시키고 손도장까지 받았고, 어민 개개인의 사진을 찍었다. 어민들을 범죄자로 다룬 것이다. 단 이 「조사보고서 3」은 범죄자의 「공술서」가 될 수 없었다. 이유는 어민들의 사투리를 “완벽하게 통역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또한 상륙지에서의 시간 제약 및 이슬비(안개) 때문”이라고 한다.

조사용지의 질문 항목은 (a)한국 관헌의 허가조치의 유무 및 그 내용,

20) 「복명서」의 자세한 내용은 박병섭, 전계서, 72쪽 및 77~80쪽.

(b)동도(독도)가 일본·한국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c) 1)한국 함정이 순시하고 있는지, 2)언제쯤부터인지, 3)형식·크기·척수, 4)한국 관헌이 동도에 상륙했는지 등이었다. 일본정부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 관헌이 독도어업을 통제하고 있는지, 한국 함정이 독도를 어떻게 순시하고 있는지, 어민들의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 등이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한국 어민들의 회답은 (a)허가증에 관해서는 6명 중 2명이 경찰서가 낸 출입항 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 허가증은 발동기선 선장이 가지고 있다고 회답하고, 나머지 4명은 관아의 허가는 없으며 4월경부터 제멋대로 온다고 회답했다. (b)독도의 영유의식에 대해서는 3명이 모른다고 회답하고, 나머지 3명은 생각한 적은 없다고 회답했다. (c) 한국 함정에 대해서는 3명이 온 적은 없다고 회답하고, 나머지 3명이 온 것을 본 일은 없다고 회답했다. 한국 관헌의 상륙에 대해서는 전원이 모른다고 회답했다.

어민들의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인데 변학봉 등은 10년 전부터 아무 문제없이 독도로 출어하고, 최근에는 울릉경찰서의 출항허가를 받고 있으므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 지사가 세운 독도조난어민위령비가 있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어민들에 대해 임검반은 “엄숙히 사무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말해 그들에 퇴거를 명하고, 모선이 도착하자마자 속히 퇴거하도록 권고했다”고 한다. 한편, 외무부 『독도문제개론』은 일본인들이 어민들에 대해 “본도(독도)는 일본 영토이니 차후에는 본도에 침범 작업을 하며는 일본 경찰에 인치 당한다”고 협박적인 언사를 농했다고 기록했다.²¹⁾ 어민들은 갑자기 침입해 온 일본 경찰관에 의해 심문을 받은 위에 ‘퇴거 명령’을 받았으니 경악했을 것이다.

21) 외무부, 전계서, 61쪽.

(2) 영토표주의 설치

순시선의 임검반은 시마네현이 미리 준비한 영토표주 2개 및 팻말 2개를 동도에 설치했다. 표주는 길이 2.7m, 폭 15cm 각형이며 “島根縣穩地郡五箇村竹島”라고 묵서했다. 이 글은 시마네현이 생각한 것이다.

한편 팻말 2개의 크기는 기둥을 제외해 각각 세로 45cm, 가로 75cm이며, 하나는 시마네현이 생각한 “주의 竹島(연안도서를 포함)의 주위 500미터 이내는 제1종 공동어업권(해조, 패류)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무단 채포(採捕)를 금함 시마네현”이라는 글을 일본어로 묵서했다. 또 하나의 팻말은 해상보안청이 외무성과 상의해 결정한 “주의 일본국민 및 정당한 수속을 經한 외국인 이외는 일본국 정부회[원문대로] 허가 읍시 영해(도서 거안 巨岸 3해리) 내의 立入을 금함”이라는 글을 일본어로 묵서했다. 이 팻말만은 글 중 히라가나 옆에 한글 토를 붙였다. 그러나 이 팻말은 금지하는 자가 누구인지 쓰지 않았다. 이들 표주와 팻말은 “독도조난어민위령비” 근처에 설치됐다.

(3) 독도조난어민위령비의 필사

앞의 「1차 경과보고」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48년경에 미군의 폭격연습 탓으로 조난한 어민들의 위령비가 상륙지 중앙에 서 있다. 비의 높이는 2m, 폭은 40cm이며 토대는 시멘트로 고정하고 있다. 비에 조각된 글은 다음과 같다.

前面(表面) 獨島遭難漁民慰靈碑

左橫(側面) 大韓民國慶尙北道知事曹在千題 檀紀四二八三年六月八日建

右橫(裏面) 檀紀四二八一年六月八日 1(이)獨島에 出漁中이드 漁民 五十九名이 十八隻의 漁船에 分乘 操業中 米軍演習機의 誤認爆擊을 벌(발)어 死亡 및(및) 行方不明、(十四名) 重輕傷六名

船舶破壞 4隻의 一大椿(精)事が 發生하였다 鯨濤風浪에르 (도) 不屈(屈)하는 祖國再建의 海洋勇士들에게 이 무슨 〇抑 (寬柳)한 橫厄이나 밀측(일족) 美軍의 陳謝와 社會的 同情이 〇至(하여) 水中 〇(寬)魂과 子遺家族의 慰撫 救護에 誠意를 바와 얹(마친마)았으나 多恨 喪情의 一端은 퍼고사 事件(時) 發生 二週年을 期하애(여) 短福(碍)을 이룩하고 삼가 遭難漁民 諸信(位)의 冥福을 이〇(비노)라

위 글에서 〇는 활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자이며, () 안의 글은 시마네 현 「복명서」가 기록한 글자다.

(4) '8관본부'의 소견

순시선은 08시 10분부터 독도 주변의 사진 촬영을 개시해 08시 25분에 끝내고 회항했다. 앞의 「1차 경과보고」는 마지막으로 보고자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썼다.

소견

1. 본 임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본직을 중심으로 관계관, 함정이 한 덩어리가 되고 임무 수행에 매진했으나 잇따라 내습한 악천후에 시달려, 또한 때를 같이 해 다케시마 조사를 기도한 마이니치 및 요미우리신문사 등에 방해받아 기일이 늦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대체로 소기 목적은 달성했다고 사료한다.
2. 금후는 한국연안 특별초계선으로 하여금 귀로에 다케시마를 조사시켜 상황에 따라서는 제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사카이보안부의 초계계획을 다케시마 부근 해역까지 확대해 앞 사항의 초계와 더불어 단속의 철저함을 기한다.
4. 교훈적 사항 [요지]
 - (1) 강풍 때는 상륙이 곤란
 - (2) 해상에서 보트 훈련의 필요성
 - (3) 대내 무선전화의 비화장치의 필요성, 대내 통화용에 수기·발광

의 이용

- (4) 휴대 무선전화기는 유효
- (5) 조선어 통역의 동행은 아주 유효
- (6) 악천후 때에는 레이더가 필요
- (7) 270톤 이상의 순시선에는 선외기 船外機모터보트의 탑재가 바람직함
- (8) 시마네현청 및 동승한 국경 경찰관의 협력에 감사

이 소견은 이번 ‘다케시마 단속’이 성공했다고 평가한 다음에 문제점이 나 개선해야 할 일들을 지적해, 앞으로 ‘다케시마 단속’을 강화할 뜻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1차 경과보고」가 한국의 영토표주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것이 주목된다. 일찍이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이 1947년에 “조선 울릉도 남면 독도”라고 쓴 표주를 세웠으며²²⁾, 이 표주에 대해 1952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는 “최근 울릉도로부터 어획[?] 경비원이 정부에 보내온 보고에 의하면…[도중 생략] 위령비(慰靈碑)와 우리나라 영토임을 표시하는 남면도동(南面道洞)이라는 표주(標柱)도 그대로 서있다 한다”고 전했다.²³⁾ 이 표주가 1953년 6월 27일 시점에도 존재했다면 그 날에 독도로 침입한 일본 관헌이 이를 철거했을 것이다. 그런 보고가 없으므로 이때에 이미 표주는 사라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이틀 전인 6월 25일 독도를 취재한 마이니치신문 기자는 현지르포 기사에 위령비를 소개해도 표주에 관해 아무 말이 없었다.²⁴⁾ 이때에 이미 영토표주가 없었던 것 같다.

‘8관본부’는 ‘다케시마 단속’ 강화의 방침 아래 “1차 순시” 5일 후 재빠르게 “제2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칭해 순시선 ‘나가라’를 독도로 파견했다. ‘나가라’는 〈표 1〉에 쓴 바와 같이 독도에 상륙해 “청수의 용출 터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들은 독도를 골고루 답사해 서도의 물골을 발견한 듯하

22) 정병준, 전계서, 138쪽.

23) 《동아일보》 1952.7.10, 「一大 水産場化한 獨島」.

24) 《毎日新聞》 1953.6.27, 同28, 「『竹島』現地レポート」 1, 2.

다. 한편 『독도문제개론』은 “7월 1일에도 일본 선박이 독도를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고 간단히 기록했는데 이는 “제2차 다케시마 순시”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처럼 외무부 기록은 날짜를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민들이 말하는 음력 날짜를 양력에 환산할 때 생긴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어민들은 일본 경찰관에도 음력으로 날짜를 말하고 있었다.

그 후 <표 1>에 의하면 ‘8관본부’는 7월 9일에 순시선 ‘오키’가 “제3차 다케시마 순시”를 실시했다. ‘오키’는 독도에 100m까지 접근해 사진촬영을 했다. <표 1>에는 일본의 영토표주에 관해 아무 말이 없는데, 표주는 7월 3일에 울릉경찰서가 철거했다고 한다.²⁵⁾

4. 순시선 총격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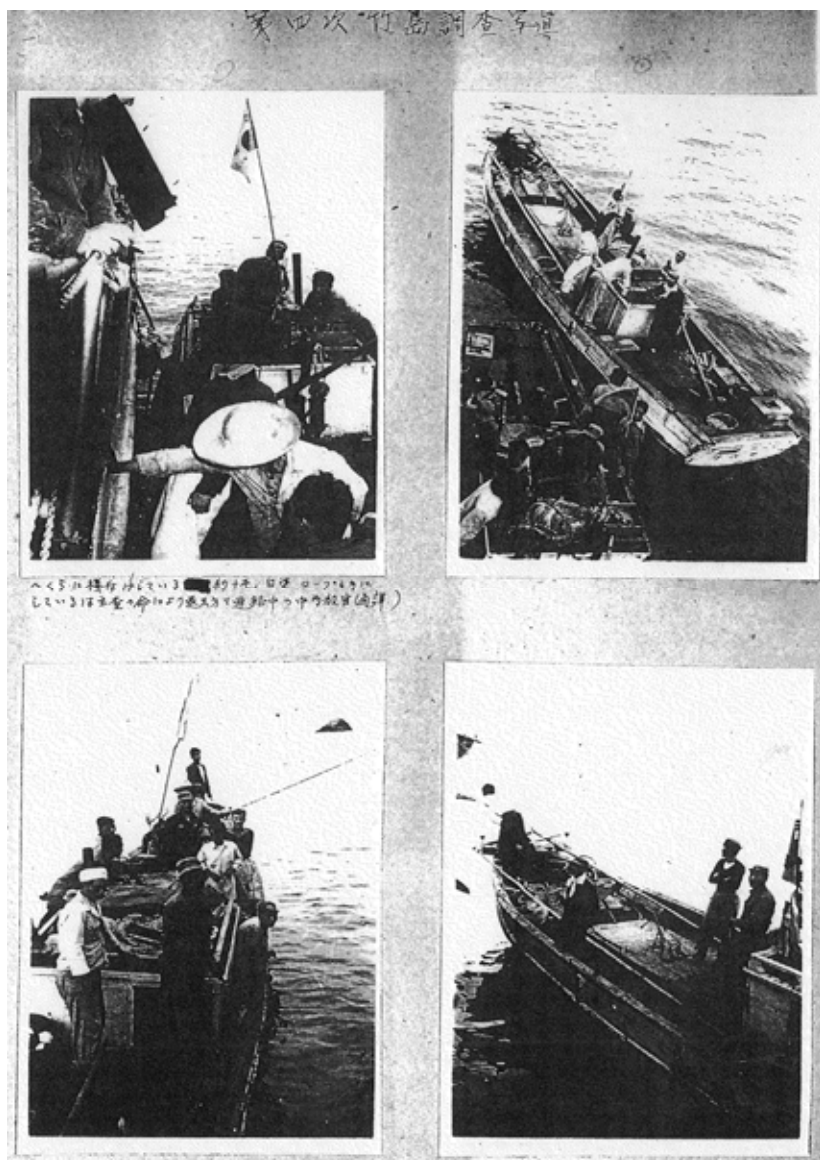
일본 순시선의 행패가 보도되자 한국에서는 “일제 침략의 재판이라고 여론이 비등해”, 정부는 해군 함정의 파견을 7월 2일 결정했다.²⁶⁾ 한국국회에서는 7월 8일에 「독도 침해사건에 관한 대정부건의」를 결의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7월 10일에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²⁷⁾

한국 함정이 독도로 파견됐다는 정보가 일본에 전해지자 순시선 ‘헤쿠라’가 독도로 급행했다. 일본이 이르는 “제4차 다케시마 순시”, 외무부가 이르는 “제5차 침범”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한 자료로서 ‘8관본부’는 본부장이 해상보안청 경비구난부장에 보낸 7월 13일자 「제4차 다케시마 주변 특별단속 실시보고에 관해」를 공개했다. 이 자료의 내용은 사카이해상보안부장(사카이보안부장으로 약칭)이 ‘8관본부장’에게 보낸 「제4차 다케시

25) 외무부, 전계서, 67쪽.

26) 《朝日新聞》 1953.7.3, 「韓国 竹島に艦艇派遣」.

27) 외무부, 전계서, 67~69쪽.



〈그림 4〉 「제4차 竹島 조사 사진」 사진 설명은 “헤쿠라 옆에 대고 있는 口口[榮號] 약 10톤. 흰색 로프를 손에 잡고 있는 자는 주사의 명에 의해 퇴거해야 할 것을 연락 중인 중학 교관 통역”

마 주변 특별단속 실시보고」(「4차 실시보고」로 약칭) 및 「8관본부」의 전보 문 첩, 사진 13장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단, 「□…□」는 먹칠된 부분이며, 필자의 주를 [] 안에 넣었다.

「8관본부장」은 한국 함정이 독도 방면에 출동했다는 정보를 얻어, 7월 11일 13시에 사카이보안본부장가시와 히로쓰구(柏博次)에 “제4차 다케시마 주변 특별단속」실시를 다음과 같이 전보로 명했다. 지휘관은 사카이보안부장, 사용하는 함정은 ‘헤쿠라’, 조사사항은 “제1차 단속」에서 실시한 사항에 관해 상황을 확인한다, 실시 예정은 11일 20시 00분에 사카이를 출발하고 다음 날 오전에 현지조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주의사항으로 “한국 측 함정에 조우한 경우는 접근할 것 없이 그 동태에 주시하고 임검반의 상륙은 하지 않는다”, “한국 어선에 대해서도 경계를 엄중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카이보안본부장은 독도 상륙에 대비해 임검반 12명을 조직했는데 그 중 6명을 무장시켰다. ‘헤쿠라」는 05시 30분에 독도에 도착해, 먼저 동도에 세운 영토표주가 없어졌음을 확인했다. 다음에 ‘헤쿠라」는 독도를 왼쪽으로 보고 일주하고, 서도 서단을 돌았을 때에 남서 해안에 흰색 어선(약 10톤) 2척과 청색 어선(약 5톤) 1척이 모두 태극기를 달고 정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승무원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 05시 50분에 그들에 조심해 약 700m까지 다가가 정지하고 섬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섬에는 미군 노무자 옷차림 비슷한 녹색 옷과 모자를 착용한 경비원 같은 자가 수명 있었다.

06시 10분 상륙용 보트를 내리기 시작하고, 임검반에 출동 준비를 명했다. 마침 흰색 어선 1척이 다가와 06시 15분에 ‘헤쿠라」 옆에 댔다. 이는 □□(榮號)(약 10톤)이며 총기는 없고 잠수 펌프를 장비해 잠수복을 입고 있었다. 이 어선에서 3명이 ‘헤쿠라」에 올라와 선장실에서 면담했다. 이때의 일을 「4차 실시보고」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날지 모른다”라는 말이 돌아왔다. □□□□□□□□□□□□□□□□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라고 말했던바 그들은 어선 내에서 상의했다가, 사복차림 경비원(이는 울릉도 경찰국 □□주사 主査)와 조금 전에 배에 탔던 3명이 와서 선장실에서 회담을 가졌다. 주사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울릉도 경비원으로서 본도를 지키고 있다. 영해 내에 들어온 타국의 배는 나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단 울릉도까지 와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이 우리들을 일본에 납치한다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본직의 평화롭게 양해를 얻으려는 노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또한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일본 측 주장을 가져가서 보고를 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태가 험악하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본직은 “본선은 초계를 속행할 것이니 하선하시오”라는 뜻을 전하고 출항준비를 명했다. 그들은 마지못해 간신히 배를 떠났다.

이때에 청색 어선(앞의 배보다 조금 작다)이 육지 방향으로부터 본선에 다가오고 있었다. 이 배는 자동소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08시 00분 竹島를 왼쪽으로 보고 1주 함. 08시 25분경 앞에 정지한 곳 근처에 왔을 때에 어선 3척이 갑자기 바위 그늘에 숨었다가, 이때에 육상 높은 곳에서 발포, 이어서 수십 발의 총격이 있었다. 탄환은 왼쪽 뱃전 근처에 물보라를 일으켜 흩어졌다. 즉시 갑판 위의 승무원에 퇴피를 명했으며, 인명에는 별고 없었다.

08시 35분 사카이를 향해 귀항했다.

특별조사 제3보를 타전. 그 후 선체를 조사한 결과 왼쪽 뱃전에 있는 2호 보트의 뒤쪽 뱃전을 관통해 대빋(davit) 로프에 총알이 멈추고 있는 것을 발견. 또 항해과(航海科) 제4창고 왼쪽 뱃전 水口해독 불능 위 2피트에서 탄흔을 발견했다. 이상을 09시 30분에 특별조사 제4보로 타전했다.

그 후 해상은 평온. 선체나 승무원에 이상이 없으며 17시 30분 사카이항에 귀항했다.

소견

이번 행동에 비추어 보면 한국 측은 본도[독도]에 대해 예상 밖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중학교 교사의 발언에 의하면 竹島는 울릉도민

17,000명의 생명선이다), 한국 측으로서는 금후도 어업을 계속하고, 아울러 경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일본 측 출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맹신적으로 한국 영토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의 교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상

이 보고에 의하면 어선 ‘영호’는 <그림 4>와 같이 잠수기와 잠수복을 실었는데, 이는 전복 등을 채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미역은 여름에 되면 녹아지기 때문에 7월에 미역 채취는 어렵다. 또한 「1차 경과보고」에도 6월 27일 시점에 미역은 거의 채취됐다고 한다.

울릉경찰서 순라반은 ‘대성호’에 편승해 독도로 갔는데, 본래 이런 해상 경비는 1953년 12월 23일에 해양경찰대가 창설되기까지는 해군의 임무였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전쟁 중이며 해군은 전쟁 수행에 여념이 없는데다가 평화선 혹은 ‘클라크라인’을 넘어 제주도나 흑산도 앞바다 등에 침입하는 일본 어선의 대처 등으로 바빴다.²⁸⁾ 그래도 해군은 독도문제를 간과하지 못해 내무부에 독도의 경비를 의뢰한 것 같으며, 울릉경찰서가 출동했다.

울릉경찰서는 ‘대성호’에 자동소총, 카빈총, 경기관총 등을 싣고 11일 밤에 독도에 도착했다.²⁹⁾ 다음날 아침 순라반이 총기들을 양륙하려던 무렵 일본 순시선을 발견했다. 『독도문제개론』은 이때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울릉경찰서에서는 연해와 동도독도주변에서 어로 중인 한국인의 보호와 동도에 빈번하게 침범하는 일본인들을 감시 차 1953년 7월 11일 오전 11시 울릉경찰서 근무 사찰주임 경위 김진성, 경사 최현식, 순경 최용득

28) 『해양경찰 60년사』, 해양경찰청, 2013, 50~52쪽.

29) 총기를 실은 대성호의 사진이 『アサヒグラフ』 1953.9.16, 「日韓の係争地「竹島」」에 게재됐다.



〈그림 5〉 제2차 '헤쿠라' 선상회의. 인물은 왼쪽부터 사카이(境)해상보안부장 가시와 히로쓰구(柏博次), 경사 최헌식, 사찰주임 김진성으로 생각된다.

3명으로 구성된 경기 2문으로 장비된 순라반은 울릉군 남면 도동 배성희의 소유 발동기선에 편승하여 동일 오후 7시경에 동도에 도착 . . . 동일 야간은 발동기선에서 1박 하였든바 익일 7월 12일 오전 5시경 동도에서 동남방 수평선상에서 동도를 지향하여 오는 선영을 발견...³⁰⁾

일본 순시선을 발견한 순라반은 『독도문제개론』에 의하면 경사 최헌식이 울릉중학교 기 교사를 통역으로 동행하고 순시선에 올라가 선장실에서 책임자를 임검했다. 『독도문제개론』에 기록된 임검 내용은 「4차 실시보고」와 큰 모순점은 없다. 단 울릉경찰관들이 순시선 헤쿠라를 하선할 때의 설명이 서로 간에 다르다. 「4차 실시보고」는 가시와가 “하선하시오”라고 말했다더니 경찰관들은 “간신히 그들은 유유히 배를 떠났다”고 썼다. 한편으로 외무부 『독도문제개론』은 사찰주임 김진성이 “아방은 한층 강

30) 외무부, 전계서, 76~79쪽.

경하게 [울릉도로] 동행을 요구하였든바 일본인 책임자라는 자는 선장에 출발을 명하고 아방에 대하여 그러면 가겠다(소레자 이끼마스)하기에 아방은 전원 발동기선에 이승”했다고 썼다. 이 회담 때에 찍은 사진이 <그림 5>이다.³¹⁾ 벽시계는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다. 두 보고서의 설명이 어긋나는데 실재는 어떠했을까? 「4차 실시보고」에 의하면 회담에서 김진성이 가시와에 울릉도에 동행할지 아니면 “당신이 우리들을 일본에 납치하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강경히 강요했다고 하므로, 경찰관들은 아무 댓가 없이 순시선에서 유유히 하선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가시와가 방편으로 “소레자 이끼마스(그러면 가겠다)”라고 말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가시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연히 경찰관들은 분노했을 것이며, 더군다나 ‘해쿠가’가 경찰관들을 “야유하는 듯이” 독도를 일주했으므로, 격분한 경찰관들은 서도에 다시 온 순시선에 발포했다. 서도에는 최현식과 같은 녹색 옷을 입은 자들 즉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발포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자세히 보도됐다. 《산인신보》는 “서도의 좁 높은 곳에서 수 십 발의 총성이 울러 퍼지고 그 중 1발은 ‘해쿠라’ 선체 후방 왼쪽 로프에 맞았다”고 전했다.³²⁾ 그러나 총격에 관해서는 같은 신문 기사 안에 「12일 한국 어선으로부터 총격을 맞았다」고 하는 글이 있으며, 두 곳에서 총격을 당한 것처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13일자 기사는 「한국 배로부터 자동소총 수십 발 발사」라고 썼는데,³³⁾ 17일자 기사는 이에 언급하지 않고 총격 지점으로 독도의 좁 높은 언덕의 원경 사진을 실었다.³⁴⁾ 총격 지점이 한 곳인지 두 곳인지 모호하다. 《아사히신문》은 “좁 높은 곳에서 수십 발의 발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³⁵⁾

31) 『アサヒグラフ』 1953.9.16, 6쪽, 「日韓の係争地“竹島”」.

32) 《山陰新報》 1953.7.14, 「竹島で巡視船発砲さる」.

33) 《読売新聞》1953.7.13, 「韓国船側が発砲」.

34) 《読売新聞》1953.7.17, 「波立ちさわぐ竹島」.

35) 《朝日新聞》 1953.7.14, 「巡視船へくら竹島で射たる」.

한편 사건 당사자인 순라반 경사 최현식은 훗날에 “우리 선원들이 [일본] 배를 보고 뺑뺑 쏜니 배가 달려가드만. 기관총을 배에다 직접 쏘지는 않고 바다에 굽으니 달아나 버리더군요”라고 증언했다.³⁶⁾ 선원들이 발포했다면 배에서 총격을 가한 것 같다. 그러나 최현식은 다른 기회에 “배가 달아나려 하자 기다리던 순경들이 M1 소총으로 위협 사격했다”고 말했으며,³⁷⁾ 서도에 기다리던 경찰관들이 총격을 가한 것처럼 증언했다. 주된 총격은 서도에서 가한 것 같다.

사건 후 21일에 해군 참모총장 박옥규는 일본 측의 독도 침입에 대비해 해군은 “계속해 동도독도 주변을 순항하고 경계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³⁸⁾

5. “제5-9차 다케시마 순시”

일본 순시선의 피격사건은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8관본부장’은 이 사건을 중대시하고, 관계자 및 순시선장들을 비밀리에 본부장실에 소집해 앞으로의 ‘단속 실시’에 관해 대책, 방침 등을 연구, 협의했다. 이 결과 다음 ‘다케시마 순시’에는 순시선 ‘헤쿠라’를 극비리에 출동시키고, 이에 “제61차 이승만라인 특별초계”를 실시 중인 ‘구즈류’를 귀항 도중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구즈류’가 갑자기 해난구조로 인해 참가 못하게 됐으므로 ‘헤쿠라’를 단독으로 독도에 파견시켰다. “제5차 다케시마 순시”다. 이에 관한 보고서로 ‘8관본부’는 본부장이 해상보안청 경비구난과장에 보낸 「제5차 다케시마 주변해역 특별단속 경과보고에 관하여」(1953.8.5)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됐다.

36) 주장현,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75쪽.

37) 《연합뉴스》 2012.11.7, 「독도, 1950년대부터 민간 아닌 경찰이 경비」.

38) 《読売新聞》 1953.7.22, 「韓国、竹島を警戒」.

- 「다케시마 주변해역 제5차 특별단속 경과보고」
- 「제5차 다케시마 주변해역 단속 경과 개요」
- 「제5차 다케시마 주변해역 단속 관계 전보(개요)」
- 사진

첨부서류 중에서 사진만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순시선이 독도에 침입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8월 2일 '8관본부'에서 "다케시마 조사"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은 '헤쿠라'에 타고, 강풍이 불었지만 20시 30분에 사카이를 출항해 독도로 향했다. 다음 날 07시 30분 독도에서 3해리 220도 지점을 정박지로 하고, 독도에 선박이나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파수를 엄하게 해 1해리까지 다가 섬에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다음에 독도를 일주해 함정이나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해 07시 45분에 정박지로 돌아왔다. 08시 00분에 서도 남쪽 350m 지점에 보트를 내리고 임검반 11명(그 중 5명이 무장)이 08시 15분에 동도에 상륙했다. 그들은 "상륙 조사했으니 최근에 섬에 온 흔적이 없고 한국어민 조난자의 석비 및 제1차 동도조사대에 의해 설립된 표주가 한국 측에 의해 철거당했다고 여겨지는 흔적 두 군데를 발견했다"고 한다.³⁹⁾ 이 외에는 급조된 가마(생철)나 전복 조가비 12개가 산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08시 30분 서도에 상륙하고, 지난 7월 12일에 '헤쿠라'를 충격했다고 생각되는 산중턱을 조사해 소총탄 2발과 약협 51발, 기타 부품을 몇 개 수집했다. 별로 이상이 없으며 09시 00분에 임검반이 '헤쿠라'로 돌아와 귀항했다. 이 '순시'에 관해 '8관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썼다.

(1)임검반의 성과

- (ㄱ)상륙지 근처 상황으로 판단해 최근에 섬에 온 기척이 없다.
- (ㄴ)서도 오른쪽 산중턱에서 자동소총탄으로 생각되는 실탄 및 약협

³⁹⁾ 이 글은 조난자의 석비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등을 발견 압수해 ‘헤쿠라’를 총격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ㄷ)일본국 표시의 표지 등이 철거당한 흔적이 역연히 남아 있다. 한국 측 표지는 전혀 볼 수 없다.

(2)수산동식물(미역, 전복, 소라 등)은 거의 채취됐으며 어기도 지났다고 추정되므로 어업조사 외에 한국 어민은 섬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표주 등을 조속히 동서 양도에 설립하는 것은 총격 내지 분쟁사건 등을 야기할 것 없이 수행된다고 확신한다.

이 소견에 따라 ‘8관본부’는 8월 7일에 두 번째 영토표주를 독도에 세웠다. 이는 <표 1>에 의하면 해상보안청이 이르는 “제6차 다케시마 순시”인데, 이에 관한 자료는 ‘8관본부’에 없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및 이후의 ‘순시’에 대해 해상보안청장관 야마구치 쓰토무(山口伝)는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후 8월 6일에 다시 순시선 ‘헤쿠라’가 사카이를 출항해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동도(독도)에 도착해 상륙하고 골고루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때도 배나 사람을 볼 수 없었으며 그 후에 온 기척은 없었습니다. 이때에 “島根縣穩地郡五箇村竹島”라는 표주를 세웠습니다. 또한, 8월 21일에 이르러 순시선 ‘나가라’가 조선해협 특별초계의 귀도에 동도 주변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으며 전번에 세운 표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8월 31일 순시선 ‘헤쿠라’가 또한 조선해협 특별초계의 귀도 동도에 들렀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편 8월 21일경 한국정부에 있어서는 다케시마 경비를 위해 함정을 파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8월 31일 현재까지 이런 사실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상이 발표사건 이후 다케시마 현장의 상황입니다.⁴⁰⁾

이처럼 순시선은 8월 7일 “제6차 다케시마 순시”를 실시해 두 번째 영토표주를 세웠다. 또한 8월 21일에는 “제7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칭해 독도

40) 衆議院外務委員會、1953.9.4.

에 상륙하고 표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8월 31일에는 “제8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칭해 독도에 3해리까지 접근했을 뿐 상륙하지 않았다. 아마 일본의 영토표주에 이상이 없었고 독도에 아무 변화가 없었기 때문일 것 같다. 한국 어민들은 독도에서 전복을 거의 따서 이 해의 어업을 끝냈으므로 경찰도 어민 보호의 임무를 마치고 독도는 무인도가 됐다. 순시선은 9월 3일에 “제9차 다케시마 순시”를 실시해 독도에 1해리까지 접근했으나 이번에도 상륙하지 않았다.

일본의 영토표주는 9월 17일 09시 30분에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에 의해 이상이 없었음이 확인됐으나,⁴¹⁾ 마침 이 날에 울릉경찰서원이 동서 양도에 설치된 일본의 표주 두 개를 제거했다고 한다.⁴²⁾ 영토표주가 사라진 것은 일본에서는 돗토리현 수산시험선 ‘다이센(だいせん)’에 의해 9월 23일에 확인됐다.⁴³⁾

6. “제10-16차 다케시마 순시”

일본의 두 번째 표주가 제거된 것을 안 해상보안청은 <표 1>에 의하면 10월 6일에 순시선 ‘해쿠라’와 ‘나라가’가 “제10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칭해 독도에 상륙하고 세 번째 표주를 설치했다. 이 사건에 대해 ‘8관본부’는 표주 설치 작업의 사진 2장만을 공개했다. 기타 기록은 없는 것 같다. 한편 이 사건을 《아사히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사카이해상보안부 순시선 ‘해쿠라’(450톤)는 본청의 지령으로 6일 아침

41) 《朝日新聞》 1953.9.20, 「韓国人の姿なし」.

42) 정병준, 전개서, 905쪽.

43) 《山陰新報》 1953.10.8, 「竹島に三度目の標柱」; 《朝日新聞》 1953.10.7, 「三度目の標柱建つ」.

둥도·독도를 조사, 동서 양도에 “島根縣穩地郡五箇村”라고 쓴 세 번째 표주를 세웠다. 가시와 사카이보안본부장과 시마네현 직원 1명이 탄 ‘헤쿠라’는 5일 오후 7시에 사카이를 출항, 6일 이른 아침에 다케시마에 도착, 동도를 일주해 근처에 사람이나 선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트로 상륙, 표주를 세웠는데 전에 세운 표주 터는 파 일구어졌다고 한다.⁴⁴⁾

영토 표주의 설치에는 첫 번째와 같이 시마네현도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 표주는 《산인신보》에 의하면 동서 양도에 하나씩 세웠다고 한다.⁴⁵⁾

일주일 후 해상보안청은 부산방송이 독도 조사를 위해 한국 함정이 지질학자 20명을 태우고 독도로 향했다고 보도한 것을 알았다.⁴⁶⁾ 이에 대해 ‘8관본부’는 순시선 ‘헤쿠라’ 및 ‘나가라’를 독도로 파견했다. “제11차 다케시마 순시”다. 그러나 13일 아침에 독도 주변에 한국 함정은 보이지 않았으며, 한국인이 상륙한 기척도 없고, 일본의 영토 표주에 이상이 없었다. 이 날은 거센 파도로 상륙은 불가능했다. 독도에는 ‘나가라’만이 남고 ‘헤쿠라’는 회항했다. 그런데 오후 1시 40분에 한국함정 907호가 접근해왔다. 이때의 상황을 《아사히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약 7마일 떨어져 발화 신호로 다우치(田内) 선장이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 경계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자, “일본 선박은 ‘리라인’[평화선] 밖으로 퇴거하십시오”라고 회답, 거센 파도 때문에 약 10분 만에 두 배는 주장이 결렬되고 한국 함정은 울릉도로 떠났는데, 이 배는 전후에 기관총을 장비하고 있었다. ‘헤쿠라’도 사카이에 귀항했다.⁴⁷⁾

한국 함정 907호는 해군 군함이다. 독도에서 처음으로 해군 함정이 확

44) 《朝日新聞》 1953.10.7, 「三度目の標柱建つ」.

45) 《山陰新報》 1953.10.8, 「竹島に三度目の標柱」.

46)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 1965, 123쪽.

47) 《朝日新聞》 1953.10.15, 「竹島に警戒船隊出動」.

인됐다. 사건 후 해군 참모총장은 “만약 일본이 竹島독도를 점령하려고 무력에 의지한다면 한국 해군은 竹島 방위를 위해 언제든지 무력으로 응할 것이다. 竹島 주변의 방위 순찰은 강화될 것이다”고 말해,⁴⁸⁾ 거듭된 일본 순시선의 침입에서 독도를 지키는 결의를 다짐했다.

해군 군함에 탄 일행은 한국산악회 회원들이었다. 아사히신문 기자가 ‘시마네마루’에 편승해 21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 알펜(등산)협회”는 15일에 독도에 상륙하고 일본의 영토 표주를 제거해 동도 남쪽 자갈 해안에 “獨島 LIANCOURT”라고 새긴 표석을 설치했다고 한다.⁴⁹⁾ “한국 알펜(등산)협회”는 한국산악회를 가리킨다.

순시선 ‘나가라’는 <표 1>에 쓴 바과 같이 17일에 “제12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칭해 독도에 침입해 “일본 측 표주는 철거당함”을 확인했다. 이때 ‘나가라’에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등 외무성 조사단 및 중의원의 원이며 전 육군참모 쓰지 마사노부(辻政信)가 타고 있었다. 외무성의 조사목적에 대해 가와카미는 “정부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확신하고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영토문제를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으로서 한 번 현지를 볼 필요가 있으므로 단지 보았을 뿐이며 이번 조사에 깊은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⁵⁰⁾ 한편으로 쓰지의 목적은 외무성이 현지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편승했던 것이었다. 이런 쓰지의 승선을 염려한 해상보안청은 쓰지를 하선시키려고 항행 중이었던 ‘나가라’를 일단 되돌렸는데 국회위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쓰지를 하선시킬 수 없었다. 하다못해 해상보안청은 쓰지의 승선을 인정하되 ‘나가라’에 전보를 보내 “알 필요이상으로 다케시마에 접근하지마라, 알 상륙해서는 안 된다, 알 한국 군함이 와도 절대로 접촉을 피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⁵¹⁾ 이 지

48) 《朝日新聞》 1953.10.22, 「竹島防衛を強化」.

49) 《朝日新聞》 1953.10.23, 「竹島に韓国側の標石」.

50) 《朝日新聞》 1953.10.18, 「竹島に韓国の旗」.

51) 辻政信, 「波荒き李ラインを往く」, 『文藝春秋』 1953년12月号, 112쪽.

령을 받은 ‘나가라’는 <표 1>에 의하면 독도에서 300m 떨어져 사진을 촬영하고 “동도에 깃대 2개, 서도 근처 소옥에 측량 폴 1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에 관한 자료로서 ‘8관본부’는 독도의 원경 사진, 쓰지 등의 스냅 샷 등의 사진 7장을 공개했다. 단 인물 사진은 눈 부분이 먹칠되고 있었다. 쓰지는 귀향 직후에 신문기자에 “다케시마는 빼앗겼다. 리라인도 졌다. 다음은 쓰시마에 올 것이다. 100 가지 향의도 진 자의 콧노래다. 자위력이 없는 민족의 비참한 모습이다”라고 말했다.⁵²⁾

일본 외무성 조사단이 영토 표주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으니 해상보안청은 네 번째 표주를 세우기 위해 10월 23일에 ‘나가라’와 ‘노시로’를 “제13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칭해 독도로 파견했다. 두 순시선은 <표 1>에 쓴 바와 같이 한국 측 표석 및 깃대를 철거해 “설표” 즉 영토 표주를 세웠다. 이 상황을 사카이해상보안부는 “지난 6일 세 번째로 세운 일본 영토 표주는 어느새 한국의 竹島 조사단에 의해 토대까지 빼앗기고 한편으로 태극기와 조사단이 사용했다고 여겨지는 홍백 측량용 폴, 외제 담배꽂초가 산란하고 있었다. 또한 동도에 서 있던 높이 30cm, 폭 40cm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한국등산협회의 표지 ‘獨島’는 시멘트로 고정되고 있었으나, 승선자들이 이를 부셔 바다에 버리고 일본의 영토 표주를 세워 돌아왔다”고 말했다.⁵³⁾ 이 사건을 《아사히신문》은 10월 22일의 일로 보도했으나,⁵⁴⁾ 이는 23일의 잘못이다. 한편 이 사건에 관한 자료는 ‘8관본부’로부터 아무 것도 공개되지 않았다.

네 번째에 세운 영토 표주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8관본부’는 11월 15일에 “제14차 다케시마 순시”를 실시했다. 순시선 ‘나가라’는 독도에 200m 까지 접근해 표주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도 ‘8관본부’는 12월 6일에 “제15차 다케시마 순시”를 실시해 순시선 ‘헤쿠라’가 독도에 5해리까

52) 위의 책, 113쪽.

53) 《山陰新報》 1953.10.26, 「韓国標識をぶち壊す」.

54) 《朝日新聞》 1953.10.25, 「竹島に日本領の標柱」.

지 접근했다고 한다. 또한 12월 19일에 이 해 마지막의 “제16차 다케시마 순시”를 실시해, 순시선 ‘헤쿠라’가 독도에 3해리까지 접근했다고 한다. 이들 독도 침입에 관한 자료는 ‘8관본부’에 없는지 아무 것도 공개되지 않았다. 네 번째 영토 표주는 다음 해 5월 3일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⁵⁵⁾

7. 맺음말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은 <표 1>과 같은데, 이런 순시선의 침입은 해상보안청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무성과 면밀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졌다. 순시선 외에도 독도에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나 오토리현 수산시험선 ‘다이센’ 등도 자주 침입하고, 한국 어민을 조사하거나 일본의 영토 표주의 존폐를 해상보안청에 보고하는 등 순시선의 보완적인 역할도 했다. 순시선 외의 선박이 1953년에 독도로 침입한 사례는 <표 3>과 같다.

<표 3> 1953년 순시선 외의 독도 침입

월일	선박	특기사항
5.28	시마네마루	외무부 “제1차 침범”. 한국 어민을 조사
6.15	시마네마루	독도 동방에 신토퇴(神藤堆, 심홍택해산)를 발견
6.25	오토리마루	외무부 “제2, 3차 침범”. 마이니치신문 취재
9.17	시마네마루	두 번째 일본 표주를 확인
9.23	다이센	두 번째 일본 표주가 없음을 확인
10.21	시마네마루	한국산악회 표석 ‘獨島 LIANCOURT’ 발견, 아사히신문 취재

55) 《山陰新報》 1954.5.7, 「アシカ遊ぶ孤島「竹島」」.

독도에서는 광복 전부터 한국 어민들이 왕성하게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1953년 5월에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가 울릉도민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일본 영토권에 대한 침해, 밀항, 밀어로 간주했다. 이에 대처해 ‘8관본부’가 시마네경찰서, 입국관리사무소, 미군 등과 상의해 대응책으로 “제1차 다케시마 단속”을 실시했다. 즉 6월 23일부터 시마네현과 공동으로 독도에 침입했다. 23일의 독도 상륙 시도는 거센 풍파 때문에 실패했으나, 27일에는 무장한 ‘임검반’이 독도에 상륙해 한국 어민들에 퇴거를 명하고, 독도에 일본의 영토 표주를 세우는 등 독도 침탈을 도모했다. 외무부가 “제4차 침범”이라고 말하는 사건이다. 이때 ‘8관본부’는 어민들을 범죄자로 심문해, 조사서에 손도장을 찍었다. 이 ‘단속’의 결과 일본정부는 독도에 한국의 영토 표주가 없는 것이나, 한국 관원이나 관선이 독도에 전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한 한국 어민들이 독도의 귀속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독도 침탈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 한국 측은 해양 경비를 맡은 해군이 전쟁 수행이나 ‘클라크방위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의 대응으로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독도의 경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보안청은 “제1차 다케시마 순시” 후 매주 순시선을 독도로 파견했다. 이런 빈번한 순시선의 독도 침탈 행위에 분노한 정부는 해군이 포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한국 함정이 파견된 것을 알자 이에 맞서기 위해 ‘사카이보안부장’ 가시와 히로쓰구를 지휘관으로 삼아 순시선 ‘헤쿠라’를 독도로 급파했다. 외무부가 이르는 ‘제5차 침범’, 일본이 이르는 ‘제4차 다케시마 순시’다. 이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한일 관선이 독도에서 대치했다.

이때에 실제로 독도에 파견된 자는 울릉경찰서 순라반이었다. 순라반의 사찰주임 김진성, 경사 최현식 등은 경기관총 등을 어선 ‘대성호’에 싣고 독도로 향했다. 7월 12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신고 온 경기관총을 내리기 전에 독도에 침입해 온 순시선 ‘헤쿠라’를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헤쿠

라로 올라가고 선장실에서 책임자 가시와와 담판했다. 양국의 관헌은 격론을 벌이고, 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상대방에 퇴거를 요구했다. 한국 측은 독도를 조사 중인 울릉중학교 기 교사가 통역을 하는 한편으로 독도 영유권을 역사적,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혹은 독도는 “울릉도민 1만 7천 명의 생명선”이라고 역설해 일본 측 주장을 압도했다. 또한 김진성은 가시와에 대해 우리는 영해를 침범한 외국선을 나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니, 울릉도로 동행하시오, 아니면 우리들을 일본에 납치하라고 양자택일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기백에 거스를 수 없었는지 가시와는 방편으로 “소레자 이끼마수(그러면 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가시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하선한 후에 독도를 유유히 일주했다. 김진성 등은 이를 자기들에 대한 “야유”라고 받고 서도에 대기하던 경찰관들이 ‘헤쿠라’를 총격했다. 총탄은 보트나 왼쪽 뺏전에 맞았는데 거의 피해는 없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일본은 피격을 각오하고 12월 말까지 <표 1>과 같이 12번이나 “다케시마 순시”를 계속했다. 일본이 이런 “순시”에서 집착한 것이 영토 표주였다. 6월 27일에 세운 표주는 일주일 남짓에 철거됐으나, 시기적으로 한국 어민이 오지 않는 8월 7일에 두 번째 표주를 동서 양도에 세웠다. 그런데 이것도 한 달 남짓에 철거되자 10월 6일에 세 번째 표주를 세웠다. 이는 한국산악회가 10월 15일에 철거했다. 또한 산악회는 “獨島 LIANCOURT”라고 새긴 표석을 ‘독도조난어민위령비’ 옆에 설치했다. 일본은 세 번째 표주가 철거된 것을 10월 17일에 알게 되자, 곧 네 번째 표주를 10월 23일에 세우고 산악회의 표석을 철거했다. 일본 표주의 경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일본의 영토 표주 경위

차	설립 월일		철거 월일	존속 기간
1	6.27	(제1차 순시)	7.3	6일
2	8.7	(제6차 순시)	9.17	41일
3	10.6	(제10차 순시)	10.15	9일
4	10.23	(제13차 순시)	1954년 5월	192일 이상

그러나 영토 표주가 어떻든 간에 독도는 울릉도민에 있어서 “도민의 생명선”이라고 인식되는 존재였다. 생계에 위협받은 어민들의 절실한 호소가 울릉경찰서를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이고, 나아가 전쟁에 여념이 없었던 해군을 움직이고, 해군 함정은 어느 때는 일본 순시선과 대치했다.

그러나 해군이냐 경찰서의 독도 관리는 한계가 있었으며, 일본이 10월 말에 세운 네 번째 영토 표주는 〈표 4〉와 같이 196일 이상 철거되지 않았다. 그 동안 일본은 꾸준히 “다케시마 순시”를 계속했다. 결국 일본의 독도 침탈을 상징할 영토 표주는 1953년 하반기(7-12월)의 184일 간에 실로 127일, 69% 기간 세워져 있었다. 즉 일본의 독도 침탈을 69% 허용한 셈이 된다. 이 기간에 한국의 영토 표주는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다. 간신히 한국산악회가 설치한 섬 이름을 표시한 표석 ‘獨島 LIANCOURT’가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단지 8일 간 세워져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경상북도 지사 이름이 조각된 ‘독도조난어민위령비’가 서있었으나, 일본정부는 이는 비문 내용으로 보아 영토문제와 무관하다고 보았는지 철거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전쟁의 영향이 컸던 1953년에 한국은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을 충분히 막지 못했으며, 독도 수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참고문헌】

한국어

- 박병섭, 『독도어업의 역사와 영유권 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외무부, 『독도문제개론』, 1955.
정병준, 『독도1947』, 돌베개, 2010.
주강현,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60년사』 2013.

日本語

- 『アサヒグラフ』 1953.9.16.
広瀬肇, 「竹島調査と李承晩ライン(後編)」, 『捜査研究』 745号, 2013.
兵庫仁志·小川健治, 「竹島周辺特別取締りおよび調査実施」, 『海上保安庁の思い出』, 海上保安協会, 1979.
外務省, 「日韓関係文書」公開(2008.11.16), 文書番号: 910,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その1, XV.竹島問題.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 1965.
辻政信, 「波荒き李ラインを往く」, 『文藝春秋』, 1953.12.
澤富造·井川信夫, 「復命書(1953.6.28)」, 『竹島漁場調査報告』(島根県立図書館所蔵).
海上保安庁, 『十年史』, 平和の海協会, 1961.
海上保安庁, 『海上保安庁30年史』, 海上保安協会, 1979.
『島根新聞』
『読売新聞』
『毎日新聞』
『山陰新報』
『朝日新聞』

<Abstract>

Japanese Patrol Ship Invasion on Dokdo in 1953

- Analysis on the 1st material of Japan Coast Guard -

Byoungsup Park

After Korean liberation in 1945, Japanese were prohibited to sail to Dokdo and there was no invasion anymore. However, when U.S released Dokdo from air bombing training target from Japan in 1953, Japanese government ships tried to sail to Dokdo again. In May 1953, Japanese MOFA leaded an inspection for Dokdo when Shimaneken marine laboratory ship ‘Shimanemaru (島根丸)’ confirmed Korean fishers activity on Dokdo, which was considered a territorial hazard and illegal sail to Japan or illegal fishing activity on Japanese territory.

The practical team of Japanese inspection on Dokdo called ‘Takeshima inspection’ was belonged to ‘The 8th Regional Coast Guard Headquarter’ patrol ship. The patrol ship landed on east rock of Dokdo on June 27 with armed police and officials of Shimaneken. They stood a Japanese territory marking pole and ‘prohibit fishing plate’ asking Korean fishers to withdraw from Dokdo. During this inquire, they intensely questioned about Korean ship activity and government attitude which could judge Dokdo acquisition by Japan.

Korea MOFA recorded this event as “The 4th Invasion” evoking Korean governmental and civilian wrath. Korean government dispatched police from

Ulleungdo to Dokdo but Japan also dispatched a patrol ship, which is called as “The 5th Invasion” by Korea. On July 12, Korean police found a Japanese ship invaded to Dokdo and inquired to take them to Korean police station, but Japanese patrol ship escaped from the situation and Korean police shot the ship from the west rock.

In spite of this gun shoot, Japanese government continued the invade to Dokdo and Japanese patrol ship invaded 17 times on Dokdo standing territory marking pole 4 times in 1953. Finally, Japanese territory marking pole was standing for 124 days in late 1953, which counting 69% permission of Japanese invasion. There was no Korean territory marking pole on Dokdo during the time. Korea was facing serious civil war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1953 and failed to protect the territory when Japan started invasion on Dokdo and tried recovering the territory tactic.

Key words: Japan Coast Guard, The 8th Regional Coast Guard Headquarter, patrol ship ‘Hekura’, patrol ship ‘Nagara’, marine laboratory ship ‘Shimane Maru’, Takeshima inspection team, Dokdo patrol team, Ulleung Police station, territory marking pole, shooting event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0일에 투고하여
	2014년 11월 30일까지 심사하여
	2014년 12월 5일 게재 · 결정됨